

**제니스 x 레볼루션 & 레이크 - 크로노마스터 리바이벌 A3818**  
**“에어웨이트 커버 걸”**

2020년, 제니스는 레볼루션 & 레이크와의 콜라보레이션을 통해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았던 엘 프리메로 레퍼런스인 A3818을 새롭게 부활시켰습니다. 맨프레드 로셀러(Manfred Rössler)의 저서 “제니스: 1865년 설립된 스위스 워치 매뉴팩처(Zenith: Swiss Watch Manufacture Since 1865)”의 커버를 장식하며 빈티지 시계 수집가와 엘 프리메로 애호가들에게 “커버 걸”이라는 애칭을 얻은 A3818은 1971년, 단기간 제한된 수량만 판매되며 누구나 탐낼 만한 특별한 빈티지 엘 프리메로 시계로 자리 잡았습니다. 모던한 버전으로 새롭게 태어난 제니스 x 레볼루션 크로노마스터 리바이벌 A3818 “커버 걸”은 출시 직후부터 빈티지 시계 애호가와 제니스 팬들의 환호를 자아내며 단 몇 시간 만에 100피스 한정 에디션이 매진되는 광경을 연출했습니다. 이제 제니스가 레볼루션 & 레이크와 다시 한번 손을 잡고 커버 걸 타임피스에 모던한 감성으로 새로운 매력을 더합니다. **크로노마스터 리바이벌 A3818 “에어웨이트 커버 걸”**을 만나보세요.

에어웨이트 커버 걸은 얼핏 보면 이전에 출시된 커버 걸과 별 다른 차이가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손목에 착용한 순간, 그 생각은 단숨에 사라집니다. 래더(ladder) 브레이슬릿이 장착되어 무게가 단 78.2g에 불과한 에어웨이트 커버 걸은 전체가 미리 폴리싱 처리가 가능한 그레이드 5 티타늄 소재로 제작되어 특별함을 선사합니다. 전체적으로 동일한 마감을 유지하면서 기존의 스틸 소재에서 가벼우면서도 견고한 티타늄 소재로 전환하기까지 제니스는 끊임없는 도전과 어려운 실험 과정을 거쳐야 했습니다. 1960년대에 명성 높은 게 프레르(Gay Frères) 회사에서 디자인한 래더 브레이슬릿은 제니스 사상 최초로 티타늄 소재로 완성되었으며, 중앙에 폴리싱 처리한 링크로 특별한 포인트를 더했습니다.

*“제니스의 전통은 1969년 세계 최초의 통합형 자동 크로노그래프를 선보였던 것처럼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 끊임없이 도전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크로노마스터 ‘새도우’ 리미티드 에디션과 같은 일부 A386 스타일 케이스에 티타늄을 사용한 적은 있지만, 브레이슬릿에 사용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가 바로 새로운 시도를 감행해 볼 완벽한 시기라고 생각했죠. 수집가에게 더욱 큰 가치를 선사할 야심찬 리미티드 에디션을 선보일 수 있어 정말 기쁩니다.”* 지금껏 만나보지 못한 독보적인 방식으로 티타늄 소재를 활용한 이번 타임피스에 대해 **줄리앙 토나레(Julien Tornare)**는 이렇게 전했습니다.

오리지널 A3818의 가장 매력적인 특징은 바로 눈길을 사로잡는 다이얼입니다. 특별 에디션으로 선보이는 이번 시리즈에서는 세로로 브러싱 처리한 마감과 슈퍼맨 블루 톤의 다이얼로 기존 모델의 매력을 고스란히 재현하고, 상어 이빨(shark tooth) 스케일과 타키미터 스케일, 로고와 텍스트는 전체에 슈퍼 루미노바 처리로 모던한 감성을 더했습니다. 크로노마스터 리바이벌 A3818 커버 걸과 비교했을 때 기존 리바이벌 에디션에서 선보인 살짝 그린 컬러가 감도는 “C3” 톤의 슈퍼 루미노바와는 달리 에어웨이트 커버 걸은 “C1” 화이트 컬러의 슈퍼 루미노바로 더욱 자연스러운 매력을 드러냅니다.



사파이어 케이스백을 통해 1969 년의 오리지널 엘 프리메로 오토매틱 고주파 크로노그래프 무브먼트의 직계 후손이라 할 수 있는 5Hz(36,000VpH)로 박동하는 엘 프리메로 400 칼리버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250 피스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출시되는 제니스 x *레볼루션 & 레이크* 크로노마스터 리바이벌 A3818 “에어웨이트 커버 걸”은 *레볼루션 & 레이크* 및 전 세계 제니스 부티크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 제니스: 꿈을 향한 도전.

제니스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꿈을 추구하며 이를 이뤄내는 모든 이들에게 영감을 선사하고자 합니다. 1865년 설립 이후 제니스는 최초로 현대적 의미의 시계 매뉴팩처로 자리 잡았으며, 제니스 시계는 영국해협 횡단 비행으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한 루이 블레리오(Louis Blériot)부터 성층권 자유낙하 기록을 세운 펠릭스 바움가트너(Felix Baumgartner)에 이르기까지 큰 꿈을 꾸며 불가능을 이루기 위해 노력해온 특별한 인물들과 함께해왔습니다. 제니스는 또한 여성들이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고 다른 사람들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영감을 불어넣는 드림허스(DREAMHERS) 플랫폼을 마련해 과거와 현재의 선구적인 여성들의 업적을 기념하고 그들에게 주목합니다.

제니스 시계에는 모두 인하우스 방식으로 자체 개발 및 제작한 무브먼트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제니스는 1969년 세계 최초의 오토매틱 크로노그래프 칼리버인 엘 프리메로를 출시했으며, 최근에는 0.1 초까지 측정 가능한 크로노마스터 라인과 0.01 초의 정밀성을 갖춘 데피 컬렉션을 통해 더욱 정밀한 컴플리케이션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제니스는 1865년부터 지금까지 대담한 도전으로 한계를 뛰어넘는 이들과 함께 스위스 워치메이킹의 미래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나만의 꿈을 향해 손을 뻗을 시간입니다.

## 크로노마스터 리바이벌 A3818 “에어웨이트 커버 걸”

레퍼런스: 95.A3818.400/51.M3818

**핵심 사항:** 1971 레퍼런스 A3818의 오리지널 버전 리바이벌. 오토매틱 엘 프리메로 컬럼 휠 크로노그래프 무브먼트. 사상 최초의 래더 브레이슬릿. 250피스 리미티드 에디션.

**무브먼트:** 엘 프리메로 400. ‘꼬뜨 드 제네브’ (Côte de Genève) 문양이 장식된 로터.

**진동 수:** 시간당 36,000회(5Hz)

**파워 리저브:** 최소 50시간

**기능:** 중앙에 위치한 아워 및 미닛 핸즈. 9시 방향에 위치한 스몰 세컨즈. 센트럴 크로노그래프 핸드, 6시 방향의 12시간 카운터, 3시 방향의 30분 카운터. 타키미터 & 펄소미터 스케일

4시 30분 방향에 위치한 날짜 표시창.

**케이스:** 37mm

**재질:** 5등급 티타늄

**다이얼:** “슈퍼맨” 세로로 브러싱 처리된 블루

**방수:** 5ATM

**케이스백:** 투명한 사파이어 크리스탈

**가격:** 9,900 스위스 프랑

**아워 마커:** 로듐 도금, 각면 처리 및 슈퍼 루미노바®SLN 코팅

**핸즈:** 로듐 도금, 각면 처리 및 슈퍼 루미노바®SLN C1 코팅

**브레이슬릿 & 버클:** 티타늄 래더 브레이슬릿 및 화이트 스티칭 장식의 블루 “코듀라” 효과 스트랩.

